

<대화 A-1-b 요한과 그의 제자들간의 대화>

요한복음 3장 22-30절 말씀

- 22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
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
- 23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
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
- 24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
- 25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
정결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
- 26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
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 강 저편에 있던 이
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
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
- 27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
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 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
- 28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
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
- 29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
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
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
- 30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